

‘드론에 LED 장착’ 발상의 전환... 글로벌 軍시장 정조준

메트로가 만난 기업 안혜리 태경전자 대표

드론에 써치라이트를 장착해 수색, 정찰 등이 가능한 혁신 제품으로 국방 분야를 공략하고 있는 여성벤처기업인 이 있다.

경력이 군대와는 전혀 무관한데다, 사업하면서 만나는 상대방이 모두 남성이지만 집안에서 물려받은 ‘사업 DNA’와 통신, IT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태경전자 안혜리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를 위해 쓴 조명탄 값만 160억원이 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활용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드론에 고휘도의 LED를 장착한 제품이 당시에 있었다면 예산도 크게 줄이고, 수색하는데도 더욱 효과적이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공교롭게도 안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태경전자를 창업했다.

초기부터 운이 좋게도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 방산회사로부터 특수공정 인증을 받아 군용 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기술력은 물론이고 군수품 특성상 방

수, 방진 등의 특성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튼튼하게 제작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신생회사가 대기업들과 거래선을 트며 당당히 방산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군인들이 훈련이나 실전에 쓰는 골전도 헤드셋, 이어셋이 태경전자의 초기 작품이었다.

부품 국산화에 전념하던 안 대표는 드론 기술에 조명탄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융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후 곧바로 드론써치라이트 연구개발에 들어갔다.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 결과물은 바로바로 특허 출원·등록을 했다. 그렇게 출원·등록한 특허만 10여 건에 달한다.

“써치라이트가 달린 드론은 외국에도 없다. 중국 DJI가 세계 드론시장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술력으로 드론써치라이트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에선 조명탄이나 야간 작업등을 대체할 수 있고, 해병대 상륙작전, 대테러, 감시·정찰 등 활용 범위가 넓다. 게다가 119 재난시나 조난 구조 등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

안대표가 연구실에서 관련 부품들을 들여보이며 설명했다. 드론에 방충장비를 장착하면 심리전이나 재난시 방충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안혜리 태경전자 대표가 경기 안양에 있는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드론써치라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태경전자의 드론써치라이트는 비행 시간이 약 25분 전후, 그리고 LED 써치라이트는 촛불 5만2000개와 맞먹는 밝기를 자랑한다.

안 대표는 드론써치라이트를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19’에서도 선보이며 기술력을 뽐낼 예정이다. 올해 ADEX는 34개국에서 430개 업체가 참가해 각종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출품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안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군대와는 거리가 먼, 그것도 드론과 써치라이트를 융합한 제품을 탄생시킨 그의 DNA가 궁금했다.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때 산판을 크게 하셨다. 당시 운전기사도 따로 돌정도였다. 그러다 6·25 전쟁이 나면서 사업을 접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안대표의 사업 DNA는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주부로 살던 그를 사촌동생이 다시 사회로 끌어

들었다.

“컴퓨터를 켜면 감전이 되는 줄만 알고 있던(웃음) 내가 사촌의 권유로 용산에서 PC방 사업을 했다. PC방이 처음 생겼을 무렵이었다. 그러다 유선통신과 광케이블이 생기면서 통신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영업을 잘 하니 통신회사에서 아예 한 지역을 떼 주더라. 휴대폰 도매상, 통신회사 기지국 공사, 구내 통신 유지 보수 등 지나고보니 통신업계에서만 16년 정도 일을 한 것 같다.”

회사를 세우고 처음에 통신 관련 제품을 자연스럽게 만든 것도 그의 이같은 이력과도 무관치 않다.

그가 드론에 달기 시작한 써치라이트의 빛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역시 통신의 ‘통(通)’과 같은 맥락이다.

“야간비행을 위한 드론에 값비싼 적외선 카메라를 모두 달 필요가 없다. 드론에 HD급 카메라와 써치라이트를 달면 성능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게 국내 기술의 경쟁력이다.”

드론써치라이트의 장점을 한참 설명하는 그에게 여성으로서 사업하기엔 어떠한 우문을 던졌다.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성취감이 크다. 무엇보다 사업이 재미있다”는 현답이 돌아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NCSU) 윌슨 칼리지에서 열린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왼쪽 세번째부터)김익환 한세실업 대표와 데이비드 힌크스 윌슨 칼리지 총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실업

한세실업, 세계 1위 섬유단과대와 ‘맞손’

美 윌슨 칼리지와 산학협력 MOU

한세실업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NCSU) 윌슨 칼리지와 산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1889년 개교한 윌슨 칼리지는 미국 내 섬유 생산 2위를 차지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해있다. 미국 상위 100위 대학에 선정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종합대학교에 속한 세계 1위 섬유단과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한세실업은 MOU를 통해 NCSU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 방문 프로그램을 비롯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 NCSU 학생들이 발행하는 매거진 출판물 공식 후원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여기에 NCSU의 다양한 산학협력 기업체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패션 트렌드 및 기술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 새로운 섬유 소재 개발 진행 등 중장기적인 프로그램까지 계획돼 있다. /김승호 기자

유한김벌리 ‘디펜드 언더웨어’ 2종 출시

유한김벌리는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와 디펜드 안심플러스 언더웨어(사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요실금 언더웨어 ‘디펜드’가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북 충주공장에 요실금 언더웨어 2호 신설비를 투자, 본격 가동에 들어면서다.



새로운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는 허리와 복부가 밀착되는 부위에 더욱 부드러운 허리밴드와 소프트슬립핏 등의 고품질 소재를 사용하고 체형에 딱 맞도록 힙 전체를 감싸주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마치 속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디펜드 안심플러스 언더웨어는 기존에 없던 옆샘 방지막을 새롭게 추가했다. /김승호 기자

‘취임 6개월’ 박영선, 국감 데뷔 성공적

(중기부 장관)

“주52시간 시행으로 현장 애로 동의” 제로페이 실효성 의문에 “시대 흐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첫날을 큰 해프닝 없이 조용히 마무리했다.

이날 취임 6개월 차를 맞은 박영선 장관은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정책 질의에 차분히 답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문제 지적에도 당황하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제로페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 등 중기부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영선 장관은 위원들의 질의에 막힘없이 답변을 내놓았다.

주 52시간제도 연속작업 문제에 대해 홍의락 의원의 “200인 이상 기업은 준비가 좀 됐는데, 100인 이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안다. 장관의 복안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주 52시간 제도는 299인 이하 전체를 보면 준비가 안 된 기업이 30%, 제조업만 보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 50% 가까이 된다”며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국회 입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제로페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핀테크 시대를 준비하는 ‘시스템적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정리했다. 김정재 의원은 “제로페이가 40% 소득공제를 해도 불편하다. 장점이 없다”며 “신용카드가 소득공제 15%고 체크·현금카드가 30%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제로페이)에 대한 신뢰를 밀어붙일 것인가”고 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제 모든 결제수단이 모바일 직불결제로 넘어간다”며 “신용카드가 좋다고 거기에 취해있으면 핀테크 발달 속도가 떨어진다. 정부는 신기술이나 신결제시스템에 대비해 인프라 투자하는 것이 역할이다. 항상 정점에서 다음 것을 준비하는 시스템적인 정부의 역할이니 이해를 해달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공직 기강에 대한 매서운 질책도 이어졌다. 산자위 위원들은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의 직원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감사를 앞두고 술자리를 가진 중기부 간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청년일자리 채용실적 허위·과장 보고 등 문제를 질으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이 김동열 중기연 원장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며 “장관님이 (김 원장을)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고 있다”고 묻자 박 장관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차분히 대응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기부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5000만원 후원을 약속했다.

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권혁홍 대표는 5000만원 후원을 약속하면서 “연말연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중소기업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의 이번 기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확산 운동을 위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앞장서 7000만원의 정기후원을 약속한 이후 처음이다. /김승호 기자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왼쪽)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5000만원 기부 약정을 하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